

우글스 Woogles

우지연의 글로벌 스토리텔링



미-중 갈등 시리즈 1. 트럼프 팀의 우선 과제와 조건

우지연 글로벌 투자전략·시황
02-709-2668 / gyeoni@ds-sec.co.kr

한 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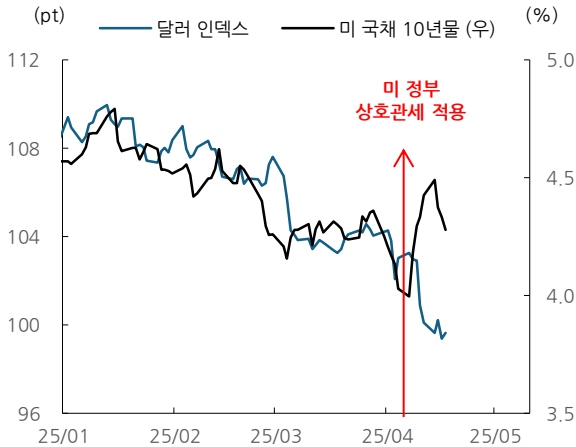
트럼프의 우선 과제는 금리를 낮춰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 타국(ex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핵심 카드는 미 국채 매입 여부

▶ 트럼프 팀의 우선 과제, 낮은 수준의 금리 유지하기

변덕스러운 트럼프 팀의 정책 기저에도 엄연히 '쌍둥이 적자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달러와 금리(장기물)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까지 트럼프 팀의 의도대로 시장이 작동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장 상황(금리 상방 리스크 ↑)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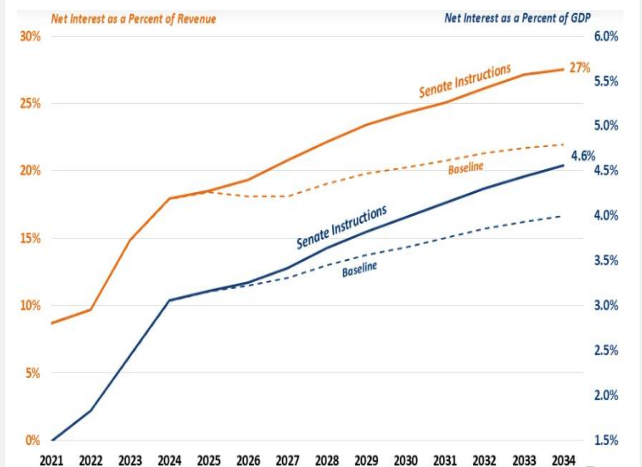
트럼프는 우선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당장의 리파이낸싱 비용과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추가 이자비용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예정된 입법(감세법 등) 스케줄을 진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최근 상원서 통과된 FY25 예산결의안에 따르면 10년 후 미국 이자/세수 비율은 24년 18% → 27%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 금리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 상원서 통과된 최종FY25 예산결의안, 이자부담 심화 전망



자료: CRFB,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90일 협상 마라톤에서의 우선 조건, 미 국채 매입(=부채 떠넘기기)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1) 관세 충격으로 경기 불안을 심화시키거나, 2) 미 장기채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 1) 방법은 최근 부작용을 경험했다. 보편관세 적용 이후 침체 공포가 심화되며 미국 10년물 금리는 5일간 40bp 가량 급등했다.
- 2)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2월 미 정부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적었음에도 이후 금리는 상승했다.

결국 현재 미국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약한 것은 외부에서 수요(=부채 떠넘기기)를 강제로 늘리는 방법이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90일간 관세 유예 협상에서 미 국채 매입을 가장 우선 조건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마러라고 합의' 현실화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미 증시 하방경직성은 강화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